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3.(월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	담당자	• 과장 김용원, 사무관 이한복, 주무관 김규희 • ☎ (044) 201-4232, 4236, 4238
	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팀	담당자	• 팀장 이종규, 과장 정연재 • ☎ (032) 741-5642, 6345
	한국공항공사 보안계획팀	담당자	• 팀장 김문환, 과장 윤기동 • ☎ (02) 2660-2411, 2414
보 도 일 시		2017년 10월 2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, “평소처럼 공항 오세요”

출발 3시간 전 공항 도착...환승·면세점 이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구, 환승검색장에 조금 더 빨리 와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번 10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고 밝혔다. 이는 미국 교통보안청(TSA)에서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요청(‘17. 6. 28.)한 보안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.
- 미국 교통보안청이 요청한 보안강화 조치는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하게 되며, 탑승구 앞 휴대전자제품 검색 등은 이미 시행(‘17. 7. 19.)중이고, 10월 26일부터는 항공권 발권카운터 앞, 환승검색장 앞, 탑승구 앞에서 보안질의(인터뷰)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.
- 항공사·인천공항공사·국토부가 19일 실시한 사전 시범운영 결과, 미국행 항공기의 경우 평소와 같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.
- 출발승객에 대한 보안질의는 승객이 탑승수속을 위해 발권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소속 보안질의요원들이 돌아다니며

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. 따라서, 보안질의로 인한 승객 대기시간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로 환승하는 경우 환승검색장 앞에서 보안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에서 내린 후 곧바로 환승 검색장으로 가야한다.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 보안질을 거쳐야 하므로 면세점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에 표시된 탑승시작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탑승구 앞으로 가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전했다.

○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추가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, 출발승객 및 환승객에 대한 보안질의 항목이 추가되어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서는 승객불편 및 지연예방을 위해 보안질의자 교육훈련, 미국행 전용카운터 운영, 환승객 보안질의 구역 운영 등 인적·물적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, 미국행 항공기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미국 교통보안청의 전문 교관을 초빙하여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항공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기법 실무교육을 2주간(10. 16.~10. 27.) 받도록 하였으며, 미국 측 담당자와 항공사간 면담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의 준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

○ 아울러, 미국행 승객에게 항공기 탑승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가 사전정보(예약문자 발송 시 안내)를 제공하고,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의 노선, 목적지, 항공기 기종 등에 따라 공항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, 항공사와 공항공사에서는 홈페이지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한복 사무관, 김규희 주무관(☎ 044-201-4236/42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